

# 여수 시내버스 개편·무료환승제 보완을

다음달로 예정된 여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무료 환승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78개 노선을 53개 노선으로 개편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로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읍·면을 경유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1~2시간 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30분 무료환승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읍·면 지역 배차간격 1시간이상 노선만 10여개

일부 주민들 '30분내 무료 환승제' 혜택 못 봐

여수시 1, 2, 3 청사 연결 직통 노선 신설도 시급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과 여수경찰서, 화양면을 연결하는 24번과 24-1번, 미평초등학교에서 진남관, 돌산읍을 연결하는 112번 등은 배차 간격이 2시간으로 돼 있는 등 1시간 이상인 노선만 1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 읍·면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여수시청 학동 분청사(1청사)와 여서동 여서청사(2청사), 돌산읍 돌산청사(3청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관광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불편도 예상된다.

현재 여수시청 분청사에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등이, 여서청사에는 의회와 도심개발사업단, 돌산청사에는 관광해양수산국과 교육문화센터, 환경녹지사업소가 입주해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무료 환승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늘리고 시청사를 연결하는 직통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오는 26일부터 세계 최초의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한·러 청소년들이 합동으로 흑두루미 탐조활동을 벌인다.

## 한·러 청소년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

26~29일 '순천만 흑두루미 캠프'

내달 1~2일엔 월동지도 둘러 봐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들이 세계 유일의 연안 습지인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흑두루미 등 철새들을 공동으로 탐조할 기회를 갖게 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

청소년 5명과 우리나라 청소년 20명 등 25명이 참여하는 순천만 흑두루미 캠프가 열린다.

이번 캠프는 롯데백화점과 환경운동연합, 순천시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오는 3월1·2일에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와 강원도 철원, 연천지역 흑두루미 월동지도 둘러본다.

참가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참가비는 3만 원이다. 문의 (061-749-4007)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심장질환 어린이에 '사랑의 인술'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팀

여수서 수년째 무료 진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여수 어린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인술을 베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여수시 보건소와 인연을 맺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 박형환 교수 팀은 지난 16일 여수시 보건소 진료실에서 선천성 심장기형 어린이 환자 20여명을 무료 진료했다. (사진)

이날 심전도와 초음파 검사 결과 수술과 정밀 진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들은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2차 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된다.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 팀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천성 심장



기형 질환자 282명을 무료 진료했고, 지난해 6명 등 24명을 무료 수술 해줬다.

국내 심장외과 전문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형환 교수는 "어느 한 스승님께서 부산 지역에서 무료 진료와 수술을 했던 것을 계기로 여수 지역 심장병 환자를 돌보게 됐다"면서 "아직도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건소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은 "세브란스병원 진료팀이 두달 마다 꼬박꼬박 여수를 찾아 어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병원까지 가야하는 환자 불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여수 홈스테이 가정 모집

여수시가 외국청소년을 위한 '사랑 나눔'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한다.

여수시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초청된 외국청소년들이 머물수 있도록 홈스테이 가정 50곳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며 팩스(690-7229), 전화(690-2216~8)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2~3명이 묵을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숙박 및 조식 무료제공,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호혜, 배려, 봉사정신을 지닌 가정이면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순천 '친절한 공무원'

### 인사상 혜택 주기로

순천시가 시민들의 추천을 받은 친절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순천시는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친절 공무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방식은 시 홈페이지의 네티즌 마당 '정겨운 카페'에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와 성명, 추천 사유 등을 게시하면 되고 전화(061-749-3343·허가민원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순천시는 추천된 직원들 중 베스트 친절 공무원 1명을 선발해 시장 표창과 수급 배치를 수여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광양으로 매화 마중 오세요"

내달 8일부터 16일까지 '광양 매화 문화축제'

압화 만들기·종이매 띄우기 등 체험행사 다채

'제 12회 광양 매화 문화축제'가 오는 3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개최 된다.

'그윽한 매화향기, 섬진강에 사랑 싣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축제를 탈피해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축제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매화

꽃길 음악회, 광양 버꾸놀이 공연을 비롯해 매화 압화 만들기, 매실 천연비누만들기, 섬진강 소망 종이매 띄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부대행사로 매화음식 경연대회 및 가매주(家梅酒) 자랑대회, 광양매화 전국 사진촬영대회, 매화 백일장, 매화 사생대회가 열린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여수에 '작은 도서관' 들어선다

국민은행·STX 후원 미평사회복지관에 4월 개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여수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국민은행과 (주)STX로부터 각각 10억원과 3억원을 후원받아 여수 미평 사회복지관 등 전국 시·도에 1곳씩 '작은 도서관'을 마련한다.

미평 사회복지관내 '작은 도서관'은 오는 3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4월 초 개관할 예정이다.

'작은 도서관'에는 서가와 열람공간, 모임공간, 안내공간 등이 통합공간으로 리모델링되고 도서, 디지털 자료, 서가, 업무용과 이용자 PC,

팩스도 설치된다.

여수시는 인접 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아파트 자치위원회, 통장 등과 연계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책 읽어주기 교실을 비롯해 글쓰기교실, 동화구연, 시화 그리기,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리시시' (Rishisi) featuring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photo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agents.